

막혔던 광주 민간·군공항, ‘무안 통합이전’ 물꼬 텃다

대통령실·광주시·전남도·무안군 협의...정부 중재안 공감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전 민간공항 이전 등 이견 좁혀
국토부·기재부 포함 6자 협의체 가동...연내 합의안 도출

광주·전남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광주 민·군 공항’의 무안국제공항으로의 통합 이전이 사실상 확정됐다.

19일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에서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주선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대통령이 광주·전남 타운을 미팅 중 약속한 ‘대통령실 주관 군공항 이전 6자협의체’의 사전협의로, 그동안 각 기관이 제기한 쟁점을 논의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상호인정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서 통합이전 주요 쟁점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으며, 각 지자체의 입장에 대해서도 허심탄화하게 의견을 나눴다.

사전협의 결과 무안군의 발전을 위한 국가산단 등 첨단산업 기반 조성과 1조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 재정확보, 2027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에 맞춰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 등 대통령실과 3개 지자체는 정부에서 마련한 중재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했다.

그동안 여러 난제가 얹혀 진전을 이루기 어려웠던 통합이전 논의가 이번 4자

사전협의를 통해 의미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면서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내기 위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 등 6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연내 6자 협의체에서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이번 사전협의를 계기로 6자 협의체에 참여해 무안군 지원방안의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실무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주 미래 먹거리 조성을 위해 공격적 금융 활용, 금융비용 지원, 국가·공기업 참여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0여년간 표류해 온 군공항 이전 사업이 드디어 실행 국면에 접어들었다. 환영한다”며 “이번 ‘대통령실-지자체 4자 사전협의’는 허심탄화한 대화로 상호 신뢰를 쌓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6자 협의체를 구성을 주도한 이재명 대통령과 조건 없이 협의에 나서준 김산 군수, 광주·전남 상생발전에 노력하고 있는 김영록 지사께 감사의 마음을 전



19일 서울에서 열린 대통령실 주관 ‘대통령실-지자체 4자 사전협의’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산 무안군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왼쪽부터) 등이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하다”며 “6자 협의체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 호남의 새로운 도약을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이전까지는 여러 절차와 준비가 이어져야 하지만 정부와 각 지자체가 이번 협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따라 통합이전 추진을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그동안 요구했던 무

안군의 3대 요구조건 가운데 광주 민간공항 선 이전과 광주시의 1조원 규모의 지원책 확보방안 등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졌다”며 사전협의의 결과에 대해 긍정 평가했다. 무안군은 사회단체, 전문가, 언론, 주민 등 군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반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2면에 계속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알림

광남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취재경력기자 모집...28일까지 접수

창사 30주년을 맞은 광주·전남지역의 대표 정론지 광남일보가 미래를 함께 열어 갈 역량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남일보는 그동안 비주얼 편집을 통해 ‘보는 신문’의 새 지평을 열며 독자와 지역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지역 최고의 미디어 플랫폼을 꾸리는 광남일보에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열정과 패기 넘치는 인재들의 많은 지원 기다립니다.

- 모집대상** : -경력기자 : 0명 (취제)
-지역기자 : 곡성군(1명)
- 응시자격** : -언론사(일간지 및 월간지 등) 근무 경력자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 결격사유 없는 자
- 전형방법** : -1차 :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2차 : 심층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함·합격자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A4용지 1매 이내),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자격증 및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본인 작성 기사 사본 5건
- 서류접수** : -접수기간 : 2025년 11월 28일 (금)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소인 유효) 또는 이메일접수 (design@gwangnam.co.kr), 광남일보 홈페이지 (gwangnam.co.kr)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접수처 및 문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4층) 광남일보 총무국 (☎ 062-370-7093)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2027년 개통

지반 변화·극한호우 영향...내년 말 공사 완료후 1년 시운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이 오는 2027년 말 개통할 전망이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에 대한 공정 재조정 작업을 진행한 결과, 내년 말까지 모든 공정을 마무리하고 1년간 시운전을 거쳐 2027년 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공정 계획을 조정했다.

현재 1단계 구간은 서구와 남구지역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토목공사 공정률은 1~6공구 92~99%를 기록했다.

시는 철도 운행에 필요한 전기·통신·신호기 설치 등의 공정은 내년 말까지 완료해 건설공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운전 기간 1년 동안은 보안사항 개선을 위한 공사만 진행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개통은 앞서 두 차례 연기된 바 있다.

1차로 초기 공정 지연과 일부 난공사 구간 발생으로 2023년 말 개통 예정이 2024년 말로 연기됐고, 2차로 공정 재조

정과 시운전 일정 반영으로 2026년 말로 다시 미뤄졌다.

이후 공사 도중 설계 당시 예측하지 못한 암반 증가와 지장물 다량 발견 등 지반 조건 변화가 발생했다.

또 전력선, 도시가스관, 상·하수관로 등 지장물은 당초 설계 대비 1.8배, 암반은 1.4배 증가해 공정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지난 7~8월 하루 최대 426mm에 달하는 극한 호우로 정거장 전체가 침수 피해를 발생했다.

시는 이같은 현장 여건을 종합 반영해 토목 공정 이후 진행할 건축, 전기·신호·

통신, 소방 등 10개 분야 공정 등을 통합 분석에 돌입했었다.

한편 10월 말 기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토목 공사 공정률은 1~6공구 모두 92~99%를 기록하고 있다. 시는 지하도 공사와 병행되는 백운광장과 도시철도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진출입로가 설치되는 정류장 구간을 제외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상부도로를 전면 개방할 계획이다.

현재 상부도로 개방률은 지난 10일 기준 1공구(차량기지~운전저수지) 93%로 가장 빠르게 복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공구(월드컵경기장) 34%, 3공구(무등시장 인근) 60%, 4공구(남광주 고가도로 앞) 59%, 5공구(산수오거리 인근) 71%, 6공구(광주역 뒷편) 78%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건설·설치·인허가·리파워링·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40-8311 / 010-4572-7164